

원자력국제표준화 기반구축사업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ISO/IEC 원자력 기술위원회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여 원자력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에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표준화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KEPIC을 개발·운영하던 대한전기협회에 수행과제를 위탁하였다.

대한전기협회는 이 과제를 수탁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아 2007년부터 국제표준회의에 전문가 대표단을 파견하고, 규제기준에 국제표준을 채택하기 위한 연구를 KINS에 위탁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조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국내 기술검토와 130종의 국제표준을 받아들여 국가표준으로 개발하기 위한 활동, 국제표준을 국내에 알리는 홍보활동 및 교육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0년 ISO TC 85 원자력국제표준 총회 개최



KOREA ELECTRIC ASSOCIATION



▶ 2010년 ISO TC 85 원자력국제표준 총회 개최



국제표준화 교육과정



2009년 원자력국제표준화 워크숍

이러한 활동은 2009년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핵연료 가돌리늄 함량측정법, 방사능 핵종의 방출을 측정시 게르마늄 분석기의 사용 및 교정, I-131의 환자 선량평가 기준 등 3건의 국제표준을 신규로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또 2004년에 제안하였던 국제표준(안)을 성공적으로 개발·완수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국제표준이 발행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 해에는 ISO TC 85 원자력국제표준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제안한 핵연료 가돌리늄 함량측정법, I-131의 환자선량평가기준이 국제표준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ISO 원자력표준에서 최초로 2명의 국제표준 프로젝트 리더가 배출되었다.

한편 2009년 말에 이루어진 원전플랜트 및 연구로의 수출로 인해 원자력 수출국이 되었고, 국제열핵융합로(ITER) 및 제4세대 원자로개발(Gen IV) 등 국제원자력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협회의 전문가가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표준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과 정보를 입수하고, 다른 선진국 전문가와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표준화 이슈에 참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